

한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

2차 예선 조별리그
6차전서 중국 꺾어
2차 예선은 마무리
27일 말레이시아서
3차 예선 조 추첨

7개월 동안 이어졌던 2차 예선 끝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진출 팀이 가려졌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는 12일(한국시각) 3차 예선에 진출할 18개 국가를 가리며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6차전에서 중국에 승리를 거둔 한국은 일본과 이란에 이어 3차 예선 1포트를 확보했다.

아시아 전통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한 카타르도 3차 예선에 안착했다.

중국도 승점과 골득실차, 득점 모두 태국과 동률을 이뤘으나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오르며 가카스로 2위 자리를 지켰다.

북한도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3월 일본과의 4차전 홈 경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0-3 불수패를 당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리아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를 돌며 축구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승점 7)를 제치고 조 2위(승점 9)에 올랐다.

키르기스스탄, 팔레스타인,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김판곤 감독과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조 3위에

머물러 3차 예선 진출이 좌절되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지도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출전 국가가 확대됐다.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다.

3차 예선에 오른 18개의 아시아 국가는 3개의 조로 나뉘어 월드컵 본선 진출

을 위해 경쟁한다.

조 1, 2위에 오른 6개 국가는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남은 2.5장의 출전권을 두고 3, 4위 국가들이 4차 예선을 치른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 추첨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뉴시스

한국, FIFA랭킹 아시아 3위 사수

풋볼랭킹닷컴, 6월 랭킹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오른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포인트에서 호주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톱시드'를 확정했다.

12일(한국시각) FIFA 랭킹을 산정하는 풋볼랭킹닷컴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한국은 23위, 호주는 24위였는데, 나란히 한 계단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월드컵 2차 예선 5, 6차전에서 각각 싱가포르(155위)와 중국(88위)을 이겼고, 호주는 방글라데시(184위), 팔레스타인(93위)을 제압했다.

FIFA 랭킹 산정 기준은 대회 성격과 상대 팀의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위 팀을 이기면 점수를

더 받는다.

한국이 호주보다 높은 순위의 팀을 모두 이겨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풋볼랭킹닷컴도 이번 6월 2연전 승리로 한국은 랭킹 포인트가 1572.87점으로 호주(1571.29점)에 1.58점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은 18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데, 6월 FIFA 랭킹 기준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3개국인 톱시드를 받는다.

일본(18위)과 이란(20위)이 두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호주를 제치고 아시아 3위 자리를 지켰다.

총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 대륙에 배정된 티켓은 8.5장이다.

3차 예선 조 추첨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뉴시스

이번 주말 K리그1 후반기 '스타트'

15일 포항-대전 경기...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승점차 적어 순위 다툼 치열

6월 A매치로 2주간 휴식을 가졌던 '하나은행 K리그1 2024'가 이번 주말 돌아온다. 전반기 큰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 후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리그1은 오는 15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17라운드 포항과 대전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지난 16경기 동안 9승 4무 3패(승점 31)를 기록한 울산HD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김천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 강원FC, 그리고 수원FC까지 각각 1점 차이로 뒤쫓고 있다.

중위권 역시 좁아졌다. 6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20) 뒤로 광주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이상 승점 19)가 1점 차이, 9위 FC서울(승점 17)은 그 뒤를 2점 차로 따라가고 있다.

하위권 경쟁도 치열하다. 10위 전북 현대부터 11위 대전하나시티즌, 그리

고 최하위 대구FC까지 세 팀이 승점 14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후반기 판도를 뒤집을 키 플레이어로 2000년대생 젊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4위 강원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 양민혁에게 기대를 건다. 2006년생 양민혁은 이번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에 데뷔한 뒤 전 경기 출전하고 있다.

16라운드까지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라운드 베스트11에도 3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등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K리그에 불풍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의 2004년생 미드필더 문민서 역시 기대주다. 문민서는 광주 구단 최초로 광주 12세 이하(U-12) 유소년팀부터 15세 이하(U-15), 18세 이하(U-18)까지 모두

거친 뒤 올 시즌 프로까지 입단한 선수 광주 선수다.

지난 3월 대구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린 뒤, 현재까지 총 13경기 출전해 2골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2003년생 박승호를 자랑한다. 올 시즌 첫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이다.

박승호는 16라운드까지 전 경기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데뷔 시즌 9경기 1골에 그친 것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별써 프로 3년 차를 맞은 대구의 박용희는 지난 2년간 총 4경기 출전에 그친 것에 비해 올 시즌 10경기 나서 3골을 넣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04년생 정재상 역시 데뷔 시즌 9경기 2골을 기록해 팀 내 떠오르는 유망주로 우뚝 섰다.

이번 시즌 유니폼을 갈아입고 새로

운 팀에 적응을 마친 이적 선수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이번 6월 A매치에서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된 최준은 K리그2 경남FC, 부산아이파크 등을 거쳐 서울에 입단하며 K리그1에 입성했다. 이번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출전해 주전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 자유계약(FA)으로 전북에 입단한 2002년생 전병관은 4골 1도움으로 팀 내 득점 1위에 올라있으며, 올 시즌 강원 입단한 김이석과, 3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수원FC의 권경원 역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역시 외국인 용병이다.

현재 K리그1 득점 선두에는 인천 무고사, 도움 선두엔 수원FC 안테르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무고사는 올 시즌 전 경기에서 9골을 터뜨렸다. 어느덧 반환점을 둔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이들이 후반기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뉴시스

우석대 사격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 '금'

우석대학교 사격부는 지난 5~11일 나주 전남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4회 홍법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여자 대항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대학 사격부 김예진·김나현(이상 스포츠지도학과 4년)·류연주(체육학과 4년)·한승현(체육학과 2년)은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민 감독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



린다"며 "여기에 인주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포켓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 획득

女프로농구 신한은행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WKBL(한국여자농구연맹) 아시아쿼터 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했다.

WKBL은 1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WKBL 사옥 1층에서 '2024~2025시즌 아시아쿼터선수 드래프트' 지명 순번 추첨식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신한은행이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다. 지명 순번 추첨식은 6개 구단이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시즌 성적에 따라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 추첨했다.

1그룹인 정규리그 6위 부산 BNK와 5위 신한은행이 각각 50%의 1순위 지명권 획득 확률을 보유하고 있었다.

추첨 결과 2순위는 BNK가 차지했고 3순위는 부천 하나원큐, 4순위 용인 삼성생명, 5순위 청주 KB국민은행, 6순위 아산 우리은행의 순서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명 순번 추첨까지 마친 이번 드래프트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며, 오전에는 캄바인 및 트라이아웃 진행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선수 선발을 진행한다.

WKBL 유튜브 공식채널 '여농티비'에서는 이날 11시부터 진행되는 트라이아웃과 선수 선발을 생중계한다. /뉴시스

제7회 전국 품바명인전

올해 출연하는 명인들



국민MC - 서정우



조대가수 - 미스미스터



서봉식



조대가수 - 수정



최민

2024년 6월 14일 오후 6시 30분 ~ 전주풍남문화광장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